

충남 (농촌)지역리더육성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유 정 규(지역재단 운영이사)

1. 머리말
2. 지역리더육성의 필요성과 목적
3. 충남 지역리더육성정책의 현황과 반성
4. 충남 지역리더육성정책의 정책과제
5. 맺음말

1. 머리말

-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변화
 - ‘지역발전’에 대한 전통적 인식은 도로나 항만 건설, 산업단지, 리조트 유치 등의 하드웨어(hard-ware) 구축을 중시해 왔음.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지역의 하드웨어 구축에는 기여하였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지나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 발전성과의 외부유출은 물론이고 각종시설의 운영미숙, 도덕적 해이, 내부갈등의 증폭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의 하드웨어 구축 보다는 소프트웨어 구축(soft-ware)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각은 결국 지역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됨. 즉, 전통적인 개념에 입각한 ‘지역발전’의 모습이 지역주민과 유리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주민 스스로의 정책수용력 강화, 지역자원의 발굴과 문제 해결능력의 배양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임
- 지역개발정책의 추진방식 변화와 주민참여 및 지역주체의 역량 강조
 -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방식이 중앙정부주도의 하향식(top-down), 설계·보급방식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한 상향식, 공모제방식으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지역주체의 역량이 곧 지역개발사업의 유치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관건으로 대두됨
 - 지역발전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지역내부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농촌 지역)현실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자원유치가 불가피한 실정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 정책사업의 유치는 (농촌)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 각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 어쨌든 정부의 정책사업 추진방식의 변화는 각 ‘지역’으로 하여금 ‘지역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특히 2005년부터 시행된 ‘신활력사업’은 각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육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키기는 주요한 계기가 됨
- 지역리더의 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의 등장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존의 하향식 정책추진방식을 지양하는 대신에 지역주도의 상향식 공모제방식을 확대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soft-ware분야에 대한 관심증대, 지역리더육성과 역량증대를 위한 교육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등직·간접적으로 지역역량강화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됨
 - 한편, ‘지자체’ 실시 이후, 지역주민에 의한 정치적 선택권이 확대되고 나아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발전 방향 설정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역발전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도 강조되었고, 그 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주민 혹은 지방정부의 각성을 불러 오므로써 각 지자체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역리더육성과 역량강화 노력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지역리더육성과 역량강화 노력에 대한 반성과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 증대
- 지역리더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지역리더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과 둘째, 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지향하는 상향식 정책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이 있으며 셋째, 지역 외부로부터 새로운 역량(=인재)을 수혈하는 방안 등이 있음. 이러한 시각에서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지역리더육성정책과 역량강화방안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추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즉, 지금까지의 많은 (농촌)지역주민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지역전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나아가 지역의 총체적인 역량증대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동시에 지역역량증대를 위한 파일럿프로그램(pilot program)이 필요성과 실행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아울러 최근에 증대되고 있는 지역 외부로부터의 인적자원조달이 갖는 의미와 활용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시각에서 이 글에서는 먼저,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지역리더육성의 필요성과 목적을 명확히 하면서 지금까지의 시행되어 온 충남지역의 농촌 지역역량강화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본 후에 향후 충남도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농촌지역리더육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함

2. 지역리더육성의 필요성 및 목적

1) 지역리더육성의 필요성과 특징

- 지역개발과 지역리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을 조직적이고 신뢰성 있게 동원할 수 있는 지역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임
 - 지역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리더와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지역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역량이 필요하며, 지역개발의 접근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훌륭한 리더의 존재는 (농촌)지역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역개발에서 지역리더의 역할 및 기능은 각 지역사회의 발전정도, 국가의 민주화 정도, 지역사회 주민들의 교육수준, 직업구조, 의식구조, 성비(性比) 등 그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주민들을 지역사회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도하고 동기화시키며, 사업의 성공을 이끌어 내는데 지역리더의 역할이 중요함. 특히,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전망의 불투명과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한 의욕상실, 과도한 부채압박 등으로 인해 의욕과 활기를 잃은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리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

- 전통적으로 농촌지역의 리더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농촌주민을 어떤 공동의 목표나 방향을 지향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이나 세력, 또는 이러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해 왔는데, 최근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지역이 갖고 있는 물리적 여건의 불리함은 지역리더의 역할에 따라 지역발전의 촉진 혹은 제약요인이 될 수 있는 중립적 요소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음(허장·정기환, 2002)
 - 가령, 부래미마을의 경우 경관이나 지역자원은 매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농촌체험·도농교류 사례지역이 되었으며, 홍성군 문당리의 경우 주변의 여건은 환경부하가 매우 심각(=축산 오폐수)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리농법을 중심으로 한 환경농업주산지로서 입지를 굳혔으며, 단양 한드미마을이나 광양 청매실농원의 경우는 모두 지리적 여건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노력과 주위의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물의 판매 확대 및 도농교류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대표적인 사례지역이 되었음

- 일반적으로 지역개발과정에서 ‘지역리더’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자원동원(resource mobilization)인데, 이때 자원동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지역사회 밖의 자원을 지역사회내부로 끌어들이는 기능, 즉 수직적 관계형성(vertical linkage)을 말하는데, 이는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각종 지역사회개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고용자나 재정적 지원을 얻어내고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 등을 의미함
 - 둘째, 지역사회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해 지역사회 내부의 주민들을 공감시키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는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새마을운동을 기점으로 행정기관 중심의 리더를 지역사회 리더로 인식하고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을 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사회의 민주화, 지방자치제의 실시, 지역주민의 각성으로 정부주도 지역개발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던 기존 리더들의 지역사회 내 입지는 약해지고 있는 반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의 지지를 얻었거나 혹은 NGO 등 기존의 지역질서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온 지역리더들의 역할이 그만큼 증대되고 있음
 - 지역개발 자원의 대부분을 외부, 특히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정부 기관의 장이나 각종 관 주도형 단체나 조직의 지도자가 지역리더로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지역개발이 주민의 기대욕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지역리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 과제가 될 것임

- 경험적인 측면에서 성공사례로 지목되는 지역리더의 일반적인 특징
 - 첫째, 외부와의 연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외부정보의 유입 및 내부생산물의 판매망 확보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정책사업 유치의 매개 고리로 활용함
 - 둘째, 사업(장사)을 잘하는 사람 : 유능한 판매수완을 개인적 이익이 아닌 지역전체의 이익증대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함
 - 셋째,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직거래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지역리더육성과 역량강화의 목적 - 무엇을 위한 지역리더를 육성할 것인가 -

-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개발 특히, 농촌지역의 개발은 개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대부분을 지역외부로부터 조달하여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역개발은 필연적으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개발성과의 외부유출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때문에 이러한 지역개발방식에 대한 대안적 지역개발이 주요한 화두로 되고 있는데, 대안적 지역개발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곧,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기지역의 개발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 즉, 지역개발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발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발전과 관련한 지역역량강화의 목적은 곧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라고 할 수 있음. 지역주민이 자기지역의 발전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임

- 지역의 내발적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지방분권의 실현
 - ‘내발적발전(內發的發展)’이란 성장만을 추구해 온 서구식 개발정책(=근대화론)이 초래한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예 : 환경파괴, 자원남용, 지역격차의 확대에 따른 사회문제 등)에 대한 반성으로 제기되었으며, 종래의 개발패턴과는 달리 지역내부의 자주적인 노력을 토대로 개발을 추구해 나가는 또 ‘하나의 개발(another development)’이론을 말함
 - 이러한 내발적발전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른바 ‘외부자원 의존형 지역개발전략’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음. 즉, 외부로부터의 자원조달에 의해 외견상 급속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다시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오히려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예 : 골프장, 스키장, 리조트 등)시킨다는 것임
 - 그러므로, 이제 개발의 단기적인 효과는 미약하더라도 지역의 주체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작업이 선행 혹은 병행되는 개발방식이 필요하고, 지역자원의 종합적 활용을 통해 지역개발의 성과가 지역 내에 귀속되는 ‘내발적 지역개발전략’을 강구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인 전제임

-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를 위한 협동체제 구축
 - 오늘날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라고 할 수 있음. 개방화와 세계화의 이면에 존재하는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식량과 에너지 고갈, 고용없는 성장 등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적 경제정책은 우리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화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자연환경의 파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온 약탈적·집약적 농업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공동체정신의 파괴, 전통문화의 붕괴, 풀뿌리민주주의와 지역주체성의 위기 등 사회적 지속가능성까지도 위협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와 개발주의에 반대하면서 지역의 재발견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¹⁾ 즉, 지역을 중앙정부나 외부자본에 의해 그 운명이 결정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공동체적 일체감을 갖고 서로 연대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주체적 존재로 파악하고, 사람과 자연이 물질대사를 하면서 서로 공생하는 생활의 거점인 동시에 세계화와 국제화에 대항하는 대안적 존재로 파악하는 것임
-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 위한 기본원리로서 ‘순환과 공생’이라는 관점이 필요함. 지역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경제의 순환, 생산과 소비의 순환, 도시와 농촌의 순환을 위한 ‘순환과 공생의 지역경제’를 만들어야 하며 둘째, 구성원 상호간의 공생과 지역자치를 위한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를 건설해야 하고 셋째, 지역자원의 순환과 환경재생을 위한 ‘순환과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지역역량강화는 이러한 공생과 순환의 지역공동체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1) 박진도·허현중(2008), 「위기의 한국농촌,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제5회 전국지역리더대회 자료집,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 만들기』 참조

3. 충남 지역리더육성정책의 현황과 반성2)

1) 충남 지역리더육성정책의 현황

<시행주체별 충남도 지역주민(농업인) 교육 내용>

주관별	교육내용	교육기관/주요사례	특성
중앙정부 위탁교육	창업농후계농업 경영인교육	연암대학, 충남농업연수원, 충남농업기술원 외	기본, 전문, 기술교육으로 주로 품목별교육
	지역특성화교육	연암대학	소규모 스터디그룹의 작목반 위주의 기술교육
민간 교육	친환경농업, 경영, 마케팅	한국벤처농업대학	2000년 민간자본으로 세워진 전문농업대학
충청남도 독자 교육	농촌여성평생교육	충남농업기술원	관광리더 등 부분별 리더교육
	지역농업 혁신리더 아카데미	충남농업기술원	작목별연구회원대상의 품목과 경영전략 교육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충남대, 공주대, 단국대	원예, 축산, 정보 분야의 경영자과정
	RIS(지역특성화)사업	충남농업테크노파크	개별농기업체의 기술 및 경영교육
시·군 독자 교육	평생교육	시·군 평생교육담당	문화, 예술, 취미, 스포츠 등 평생교육
	농업기술센터 교육	농업기술센터	지역별 특성을 살린 작목별 영농기술교육
	품목별 전문리더교육	△ 금산인삼산업CEO스쿨(한국벤처농업대 학 위탁), △ 정양고추포럼(연암대학), △ 서천군의 농업발전포럼(쌀·원에·유 통·축산)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실시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관련 교육	△ 서천군(길산권역), 부여군(반산권역) 등 10개 권역(2007년도 신규 포함)	주민교육 및 견학 등
	체험마을 리더 교육	△ 서천군 그린투어포럼(농업기술센터) △ 논산시 농촌그린투어CEO(건양대) △ 서산군 농산어촌체험지도자 양성과정	도농교류, 녹색농촌체험마을(그린투어) 리더 육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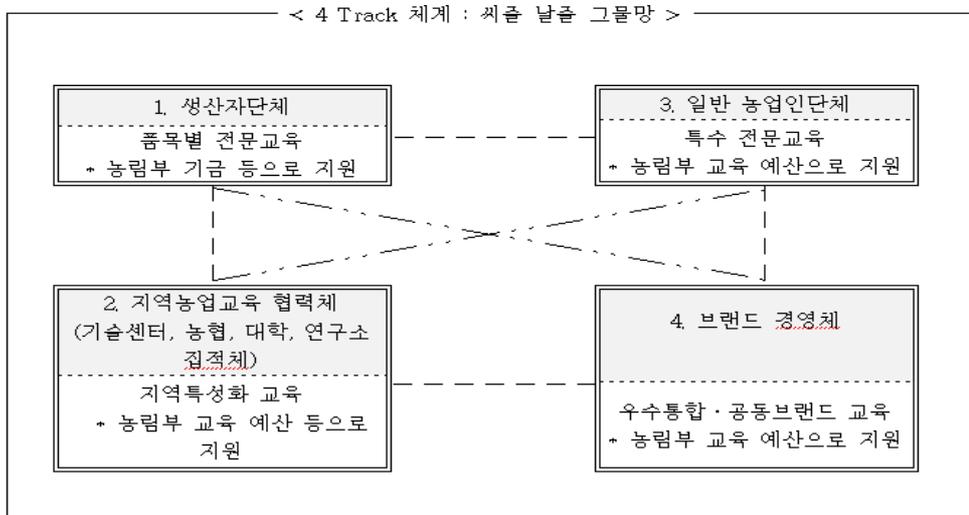
(1) 중앙정부 위탁교육

- 농식품부(당시, 농림부)에서는 2006년부터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로 신지식과 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교육체계를 개편하였음
 - 교육의 목표는 개별 농가단위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인이 소득과 연결되는 교육기회 제공, 젊고 능력 있는 신규인력의 유입의 촉진,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인 육성 도모
 - 이를 위해 그동안 농촌진흥청이 맡아왔던 교육을 ‘전문교육’과 ‘평균교육’으로 구분하여 전문교육은 생산자, 농업인 단체, 지역농업교육협력체가 담당하여 현장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평균교육은 농촌진흥청이 계속 주관키로 함

2) 박경 외(2006.12), 「충청남도 농촌지역리더육성 프로그램 실태 및 개발방안」 충남발전연구원, pp.17~52. 참조. 이 자료는 2006년까지의 현황을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2007년 이후에 시행된 정책의 내용과 평가가 빠져 있지만, 정책의 기본틀이 2010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됨. 다만, 2010년 말을 기해 그동안 지역육성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신활력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관련 정책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참고 바람

- 이 중에 민간에 위탁하는 맞춤형 전문교육은 4개 트랙(track) 체계로 체계화되어 있는데,
 - ① 품목 전문교육은 자조금을 조성한 생산자 단체가 담당하고,
 - ② 지역특성화교육은 대학, 농협, 농민단체, 지자체 등이 연계하여 지역농업교육협력체가 주담당하고,
 - ③ 특수전문교육은 일반농업인단체가 담당하고,
 - ④ 브랜드 육성 교육은 우수통합·공동브랜드경영체가 담당토록 함

<그림 1>



자료: 농림부(2006.1), 「농업교육 개편방안」

- 이 중에 도에 위임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으로서 맞춤형 전문교육 중에 ‘지역특성화교육’이,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전국평균교육으로서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및 신규교육’이 있음

가.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교육

- 농림부의 지침에 따라 시·도는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창업농 후보자 및 신규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도지사는 교육 대상자(품목별)선발, 교육 일시·장소 등 통보 및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한함
-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을 위한 교육은 품목별, 즉 잎채소(천안연암대학), 버섯(한국농업전문대학), 낙농(한경대), 경종 및 축산(농업연수원) 등의 교육이 시행되었으며, 농산물판매 및 브랜드전략 이외에 창업농을 위한 자기경영, 성과분석 등의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음

나. 지역특성화교육

- 지역특성화교육의 기본 방향은 지역 내 다양한 교육기관이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 농업인력 육성하는데 있음. 즉, 지역에 산재해 있는 재원과 인력, 시설 등을 통합 활용하여 지역농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교육 실시함
 - 교육내용은 농업인 조직화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재원은 국고 50%, 도비 15%, 시·군비 30%, 자부담 5%로 구성됨
- 지역특성화 교육은 지역별 특성을 살려 지역의 수요에 맞는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는 점에서 기존의 농업인 대상 전문교육에서 진일보한 교육방식이지만, 품목별 전문인력을 기르는데 초점이 있어 농촌지역의 전반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이끄는 ‘지역리더’ 교육과는 거리가 있으며, 이수기간과 수료 후 학위수여 등 당초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함으로써 교육추진동력이 약화됨

<표 1> 지역특성화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

<p>I. 기본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지역 농업의 비전과 발전목표의 성과를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기술·경영능력 향상 교육을 지역농업 특성에 맞게 추진 ○ 지역단위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조직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사업단위와 연결된 교육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 농업인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계기 마련(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위한 농업인 조직화, 품질향상 교육 등) <input type="checkbox"/> 지자체(기술원·센터), 농협, 대학 등이 연계하여 교육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교육 시너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별로 구성된 지역농업교육협력체를 중심으로 교육 추진 ○ 단, 협력체에는 농협·생산자조직(영농조합법인 등) 등 지역농업의 주요 사업조직·대학·농업인단체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역농업교육협력체 : 지역교육기관인 지자체(농업기술원·센터)·대학·농협·농업인단체 등의 교육역량을 결집한 집적체) <p>II. 추진 방안</p> <p>1. 교육계획 수립 주체 및 참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지자체·대학·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지역농업교육협력체』 중심으로 교육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업교육협력체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06년 자체 교육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07년 계획 수립 ○ 지역농업교육협력체는 지역별 성장가능성 있는 사업조직이 협력체에 적극 참여유도 함 <input type="checkbox"/> 지자체는 지역농업교육협력체 계획 수립 시 조정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는 지역별 사업조직의 품목기술 및 경영교육(이하, 브랜드교육)수요를 발굴하여 지역특성화교육에 반영토록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는 브랜드교육 시행 사업조직이 지역농업교육협력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화 교육 계획 수립 시 조정 - FTA기금 지원 대상 사업조직, 농림부 선정 축산 브랜드경영체 - '05~'06년 농림부에서 선정·운영중인 지역농업클러스터 <p>2. 주요 교육내용 및 교육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지역 경제품목 및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교육 및 농업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력품목 농업인 대상 경영능력 향상 및 품목기술 교육 ○ 지역농업 발전과 연계된 농촌관광사업 관련 교육 ○ 주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가조직화 및 품질관리 교육 <input type="checkbox"/> 현장중심교육 및 소그룹 단위 토론회 교육 등 농업경영환경 성격을 반영하여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현장견학, 현장지도 및 컨설팅, 워크숍, 해외 선진지 연수, 해외컨설턴트 초빙교육, 스터디그룹 운영 등 <input type="checkbox"/> 중농 이상의 경영규모·기술을 갖춘 농가를 주요 교육대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목반·영농조합법인의 리더로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등 포함 ○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포함

자료: 농림부(2006.11), 「2007 지역특성화교육 시행지침」

(2) 충남도의 자체교육

가. 농촌여성평생교육

- 충남도는 도 농업기술원의 주관 하에 여성농업인교육을 평생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별 여성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음
 - 충청남도 여성평생교육으로 농촌관광리더반, 노인간병전문반, 농촌다문화여성반, 농촌여성리더반, 해외사례연구반 등 5개 과정을 운영해왔으며, 여성리더반은 여성정책, 여성의식, 여성리더의 조건, 리더십배양 훈련 등의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음

나. 지역농업혁신리더 아카데미

- 충남농업기술원의 주관으로 운영되는 ‘지역농업혁신리더 아카데미’는 그간의 농업인교육이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따라 농작물 재배중심에서 경영·판매·수출확대의 교육내용과 방법 개선에 목표를 두고 실시함
 - 교육대상은 충청남도 작목별 연구회원으로 4개 과정(과수, 화훼, 과채류, 축산)에 80명으로 국내 4일(교육, 현장학습), 일본 등 해외연수를 실시하며,
 - 교육 참가자의 책임감 부여를 위해 소요경비의 일부를 자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교육수료자에게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사업(우수연구회 상사업비) 선정·평가, 추천 시 가점부여(농업기술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교육수료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교육에 사례발표 강사로 활용하고 있음

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 1994년부터 충청남도에서는 농업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양성과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기회교육확대로 국제농업발전을 선도하게 하기위해 자체사업으로 충남대·공주대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개설해 왔으며, 1997년부터는 단국대에도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개설함
 - 1998년부터는 정부의 국비지원(교육비의 20%)이 있었으나 2007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충청남도(80%), 교육참가자 자비부담(20%)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대상은 농업인 단체회원 및 전업농업인, 농어촌발전대상수상자 등 농업관련 종사자로 제한함

(3) 지자체 차원의 지역리더육성 정책

가. 평생교육과정 : 주민아카데미

- 충청남도에서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군의 독자적인 교육사업은 대부분 평생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으로 시·군 교육청

- 에서 담당하는 경우와 시·군 행정기관 충무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음
- 금산군의 경우, 2004년 충남에서는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학습환경을 만들어 주고 지역인적자원 개발과 사회통합, 지역 재생을 목표로 평생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부여군, 아산군도 금산군의 평생교육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홍성군도 2006년부터 사이버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여 문화교양·경영재테크·취미/건강·주부·기획강좌·수능교실·농업경영 등의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한편 연기군의 21세기 연기아카데미, 서천군의 서천아카데미 등 주민 아카데미 교육도 충남지역에서 널리 보급되어 있는데, 이런 유형의 주민 교양교육 프로그램은 장성군과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의 합작으로 1995년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개설된 이후 전남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 8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 아카데미가 장성군을 벤치마킹하여 실시하고 있음
 - 강진군민자치강좌, 강화군아카데미, 거제시민대학, 고령아카데미, 21세기 고창미래포럼, 21세기 심청골자치강좌, 느티울아카데미, 모사고을시민대학, 남해보물섬아카데미 등
 - 자치단체 아카데미는 일종의 평생교육의 장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매주 국내외 석학들과 지방자치, 지역개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저명인사들을 강사를 초빙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장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자치단체 아카데미는 자치체 공직자와 각 단체의 지도자, 그리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교양을 익히도록 하는 자기계발의 계기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명망가 중심의 일방적 전달교육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매주 진행되는 행사로 하나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함

나. 농업기술센터 교육

- 대부분의 충청남도 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농업인 교육 외에 지역별 특성을 살린 작목별 영농기술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이름의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음

<표 2> 주요 시·군의 지역농업인 교육현황 예

시·군	주요 교육과정	시·군	주요 교육과정
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 △ 벼,고추, 툇갯잎, 인삼, 약초 △ 여성문화교육 △ 경영컨설팅 	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목별(쌀, 토마토, 호박, 느타리나무, 시금, 한우 등) 연구회 △ 농업정보화교육 △ 영농교육 △ 농촌여성과제교육 △ 농산물가공교육
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분야 : 마케팅, 수출농업 	청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작물반(벼농사), 고추반, 생활과학반

△ 영농기술분야 : 친환경농업, 식량작물, 원예작물, 양봉 △ 농촌자원분야 : 농촌여성, 농촌관광	홍성	△ 농업인 정보화 교육 △ 작목별연구회
		△ 친환경 벼농사 △ 고추 마늘 △ 한우 △ 농산물 브랜드 △ 혼인귀화여성농업인 교육

다. 낙후지역 및 농촌지역개발 사업과 관련된 교육

- 2005년부터 시행된 신활력사업은 시군단위의 지역역량강화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다양한 지역리더교육이 등장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2002년 이후 등장한 다양한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정책들도 지역리더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신활력사업관련 교육
 - 충남 신활력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금산, 청양, 부여, 서천군³⁾에서는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작목별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는데 가령, 금산군의 ‘인삼산업 CEO스쿨’과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주민리더교육, 청양군의 명품청양고추 연구, 고추포럼, 고추생산리더육성, 서천군의 농업발전포럼(연구회) 운영, 부여군의 굿뜨래 작목별 연구회 운영, 굿뜨래 밤, 토마도, 쌀 등 품목별 교육과 친환경 농업인교육 등이 대표적임
- 도농교류·농촌관광리더 육성교육
 - 충청남도 시·군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의 추진주체육성을 위한 교육과 포럼운영 등으로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는데, 서천군의 경우 2006년 4월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서천군 관내 농산어촌체험마을과 농가들이 상호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어메니티 농산어촌체험관광 자원의 개발과 보전,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 개발과 워크숍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서천군 그린투어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청양군에서는 농어촌체험마을과 지역대학을 연계한 그린투어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논산시에서는 농촌그린투어CEO를 위한 경영마인드과정을 건양대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였고, 서산시는 평생교육과정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음

3) 서천군은 정부가 지정한 신활력사업 지역이 아니나, 충청남도가 별도 자금으로 신활력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특수한 사례인데, 이는 신활력사업이 재정자립도, 인구증감률, 제조업체고용율 등 5개 지표에 의해 하위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는데, 서천군은 71위로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충남도 차원에서 지원함

2) 충남 지역리더육성정책의 평가와 반성

- 충청남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거나 혹은 중앙정부에서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농업인교육은 대부분이 마케팅/유통 및 영농기술이나 품목별 전문교육 내지 품목별 전문리더 양성(지역농업혁신 리더 아카데미,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충남 농업테크노파크 RIS사업), 혹은 부분별 리더육성교육(농촌여성평생교육)이 중심이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리더’의 육성을 위한 ‘농촌지역리더’교육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 이는 시·군단위에서도 마찬가지임. 독자 교육사업은 문화, 사회, 건강, 생활, 운동 등 취미생활과 같은 평생교육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지역별 특성을 살린 작목별 영농기술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 특성에 따라 여성농업인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역시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를 길러내는 지역리더 양성 교육과는 거리가 있음
- 그러나 전통적인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서는 토론식 강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강의내용, 전문성의 충실 등에서 일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
 - 즉, 2006년부터 아산·천안지역에 실시되고 있는 지역특성화교육은 작목별 축종별 소규모 스터디그룹운영, 농업선진지 견학, 현장지도, 단기전문기술교육, 장기교육 등 수요자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방식이 동원되고 친환경영농의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의 수요에 맞는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는 점에서 기존의 농업인 대상 전문교육에서 진일보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농촌여성평생교육의 농촌여성리더반은 여성정책, 여성의식, 여성리더의 조건, 리더십배양 훈련 등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방식과 토론을 병행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음
 - 또 지역농업혁신 리더 아카데미는 교육대상인 작목별 연구회원들을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충청남도 독자 교육사업이며, 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RIS(지역특성화)사업은 농기업들의 마케팅 전략 교육을 수행하여 마케팅 전략 수립의 중요성 의식 강화 등 기술 및 경영교육면에서 충청남도의 특성 있는 교육으로 평가받고 있음
- 시·군의 경우, 신활력사업을 계기로 금산시의 인삼산업 CEO스쿨, 청양의 명품청양고추생산리더, 서천의 농업발전포럼, 부여의 굿뜨래 작목별 연구회 등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나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 일반적인 농업기술센터의 교육과 달리 포럼 형태로 참여자들의 참가 동기를 강화하고 전문 선도농을 대상으로 현장 과제 해결식 교육을 통해 지역특성을 살린 생산품 또는 작목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문 농업인교육은 품목별·작목별 선도농가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리더육성과 완전히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농촌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자원의 종합적 활용과 네발적발전의 주체로서 농촌지역리더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는 미흡한 실정임
- 다만 시·군차원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등 농촌지역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있는 점은 주목됨. 즉, 도농교류와 녹색농촌체험마을 리더육성과 관련하여 서천군의 그린투어포럼, 논산시의 농촌그린투어CEO과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 역시 마을단위 리더의 육성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것도 도농교류와 체험마을이라는 한정된 아이টে임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지역리더를 길러내는데 역시 한계가 있음
- 한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마을을 넘어선 권역 리더의 육성과 체험마을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친환경농업 등 종합적 지역발전을 사업내용으로 담고 있으나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지역리더 교육은 추진위원장이거나 마을이장 위주의 소수가 중앙정부 교육에 참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마을 주민들에게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정도의 교육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인 리더육성을 위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음

4. 충남 지역리더육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1) 충남 지역리더육성정책의 기본방향

- 지역리더의 발굴과 육성을 통한 지역역량강화의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미래에 대한 자기결정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수용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그 이유는 첫째, 기존에 투입된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유효한 활용을 위해서이고 둘째, 현실적으로 (농촌)지역개발을 위해 내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정책적인 자원유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임
-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이후 국가 농어촌정책의 추진방식이 지역·주민주도의 상향식으로 바뀌었으며, MB정부에서는 명목적으로나마 이것이 더욱 확대되어 지역의 자율성에 기초한 기초생활권정책/포괄보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정책수용 능력이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 흐름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역량강화의 궁극적 지향은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 스스

로의 자기결정권 강화' 즉,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가지역의 개발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내발적발전을 위한 자치와 분권의 실현주체 육성을 지역리더육성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는 것이 중요함

- 지역리더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지역재단 2004)을 말하며, 이러한 지역리더는 지자체장을 비롯하여 의원, 조합임직원, 농민단체임직원, 교사, 시민단체 임직원 등 다양한 신분으로 존재하는데, 개인적인 리더가 아니라 각 주체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개발을 추구해나가는 시스템적인 지역리더의 육성이 필요함
 - 지역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대부분이 농업인의 생산기술이나 경영안정 등 전문농업인력의 육성 즉, 개인의 영농기술이나 농가경영능력의 향상에 목표를 두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기여해 왔을지 모르지만 그 효과가 지역에 공유되고 지역 전체로 확산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리더의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방식의 혁신 필요성을 제기함
 - 과거의 지역리더는 헌신성과 카리스마를 갖춘 1인의 리더, 영웅적 리더십이 강조되었지만, 오늘날의 지역리더는 정보력과 기술력, 기획력, 경영관리능력, 조직력 등 다양한 능력이 요구됨
 -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능력을 모두 갖춘 지역리더를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은 다양한 능력을 갖춘 여러 지역리더들이 상호 효율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 통합적인 리더십이 발휘되는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리더십'이 필요함, 그러므로 '지역리더' 육성교육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함

2) 충남 지역리더육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

(1) 충남도 지역리더육성계획 수립

□ 지역리더육성계획의 개요

- ① 계획기간 : 2011~14(4년간)
- ② 육성인원 : 1,000명 (매년 250명×4년)
 - 지역개발부문 400명, 협동조합부문 300명, 친환경농업조직화부문 300명
- ③ 부문별·시군별 육성 목표인원
 - 지역개발부문 : 농어촌지역개발 현황과 연계하여 시·군당 25명 내외
 - 협동조합부문 : 농협중앙회 도 지역본부 및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시·군당 20명 내외

- 친환경농업조직화부문 :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친환경농업단체와 연계하여 시·군당 20명 내외
- ④ 소요예산 : 4년간 2,220,000천원 → 충남도와 시·군 및 협동조합과 40:60으로 분담
 - 충남도 : 888,000천원(1년간 222,000천원), 시·군 및 협동조합 : 1,332,000천원(1년간 333,000천원)
 - 지역개발부문 : 1인당 235만원(2박3일, 6회 과정 : 농식품부주최·한국농어촌공사주관, 2009년 농촌지역개발리더십육성과정 기준)×400명=940,000천원(도 376,000천원, 시·군 564,000천원)/4년=1년, 235,000천원 → 도 94,000천원, 시·군 141,000천원(1개 시·군당 8,813천원)
 - 협동조합부문 : 1인당 157만원(2박3일, 4회)×300명=471,000천원(도 188,400천원, 농협 도본부 및 지역농협 282,600천원)/4년=1년, 117,750천원(도 47,100천원, 농협 도본부 및 지역농협 70,650천원)
 - 친환경농업조직화부문 : 1인당 157만원(2박3일, 4회)×300명=471,000천원(도 188,400천원, 시·군 282,600천원)/4년=1년, 117,750천원(도 47,100천원, 시·군 70,650천원)
 - 우수수료자에 대한 해외선진지 견학 : 1년 20명×3개 부문=60명×120만원=72,000천원(도28,800천원, 시·군 및 농협 43,200천원)×4년=288,000천원(도 115,200천원, 시·군 및 농협 172,800천원)
 - 수료자 사후관리, 네트워킹 : 50,000천원(도 20,000천원, 시·군 및 농협 30,000천원)×3년=150,000천원(도 60,000천원, 시·군 및 농협 90,000천원)

□ 도(道)와 시·군, 협동조합의 역할분담

① 충남도의 역할

- 전체적인 교육계획 수립
- 예산 계획수립 : 시·군 및 협동조합과 40:60 분담 → 기초단체의 협력(교육참여자 확보, 사업연계 등)과 책임감 제고를 위해 반드시 공동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음
- 시·군별 교육참가자 배분 → 교육우수참여 및 우수협력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협동조합과 행정간의 협력강화방안 마련
- 도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지역리더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② 시·군의 역할

- 도와 연계·협력하여 자체적인 지역리더 육성계획 수립
- 할당된 교육참여자의 선발 및 관리
- 분담된 예산마련
- 우수교육수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 수립
- 교육과 사업과 연계강화를 통해 교육효과 제고방안 마련

③ 협동조합의 역할

- 중앙회 도 지역본부는 물론이고 각 지역조합에서도 협동조합리더 육성이라는 목표에 공감하면서, 할당된 예산의 마련과 적절한 교육대상자(이·감사) 선정에 협력

-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사업지원방안 마련

(2) 지역리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프로그램개발의 기법 선택
 -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모델은 일반적으로 ISD(Instructional System Development: 교수체계개발)모델과 CBC(Competency Based Curriculum: 역량 기반과정개발)모델이 있음
 - 전자는 ‘분석-설계-개발-구현(실현)-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진 가장 보편적인 교육프로그램개발방식이지만, 개발기간이 장기적이며 사전에 충분한 샘플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위한 리더육성에는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강함
 - 반면에 후자는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competency)를 상정하고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지식,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법으로서 일반적으로 HRD에서 채택되는 기법이며, 최근에는 과정 개발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폭넓은 성과향상을 위한 과제해결을 위해 수행공학(HPT: Human Performance Technology)이 각광받는 추세임
- ‘시스템적인 리더’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과거에는 헌신성과 카리스마를 갖춘 1인의 리더, 영웅적 리더십이 강조되었지만, 오늘날의 지역리더는 정보력과 기술력, 기획력, 경영관리능력, 조직력 등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다양한 능력을 모두 갖춘 지역리더를 찾기란 쉽지 않고 따라서 오늘날은 다양한 능력을 갖춘 여러 지역리더들이 상호 효율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 통합적인 리더십이 발휘되는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리더십’이 요구됨
 - 따라서,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이러한 목표에 맞춰 교육의 방법과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임
-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의 개선이 필요함
 - 새로운 지역주체를 양성하는 교육은 과거와 같은 ‘시간 때우기 식 교육’ ‘형식적인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사례발표라든가 워크숍 등 교육참가자들이 교육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은 과거와 같은 개인의 자기지향적 교육, 개별경영 안정화 교육 등으로부터 벗어나 지역과 이웃을 고려한 지역개발교육,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함양교육, 지역의 비전을 찾기 위한 자기정체성 교육, 지역자원의 활용을 위한 지역자원 찾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능력향상 교육, 분야별 전문지식 습득교육 등이 주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구성원 전체의 동참이 필요하고, 따라서 지역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우선 참여대상을 지역사회구성원 전체로 확대해야 하고 나아가 교육프로그램도 농업인은 물론 비농업인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교육프로그램개발 : 충남발전연구원 + 관련분야 전문참여
예) 충남발전연구원(2006.12.), 「충청남도 농촌지역 리더육성프로그램 실행 및 개발방안」 참조
-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외부 전문기관 위탁 운영 : 농촌지역리더 육성프로그램의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외부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방식으로 추진
 - 박경 외(2006)의 충남지역의 농촌주민(79명)과 담당공무원(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농촌주민의 64.9%, 담당공무원의 80.8%가 행정기관 보다는 민간전문교육기관을 교육주관기관으로 선호한다고 응답함

<표 3>

<옥천군 향수30리 아카데미 교육과정(예)>	
◇ 목적	신활력사업을 추진 중인 ‘향수 30리 프로젝트’의 추진주체 육성
- 실천적 실무역량강화, 주민의 자발적 참여촉진, 프로젝트 발굴과 추진력 제고	
◇ 특징	
- 워크숍과 토론 중심의 참여식 수업 + 상호학습을 토대로 하는 실천프로젝트 수행	
◇ 프로그램 구성	
- 지역리더과정	
· 참여대상 : 마을리장, 지도자 등	· 교육량 : 2박3일 4회 · 참여인원 : 35명
- 귀농·귀촌인과정	
· 참여대상 : 최근 귀농귀촌자 등	· 교육량 : 2박3일 4회 · 참여인원 : 40명
- 공직자리더과정	
· 참여대상 : 옥천군 행정공무원	· 교육량 : 2박3일 4회 · 참여인원 : 30명
- 향수마을해설사과정	
· 참여대상 : 해설사 활동가	· 교육량 : 2박3일 4회 · 참여인원 : 20명
- 프로젝트과정	
· 참여대상 : 2008, 2009년 교육이수자 중 마을단위의 소규모 프로젝트 제출자	
· 사업내용 : 특색있고 의미있는 마을담장벽화, 소규모쌈지공원, 소하천가꾸기, 꽃길조성, 환경정비 마을환경 및 경관 개선사업	
· 참여인원 : 총 4팀	
- 공통과정 : 기본소양 과정	
- 해외선진지연수과정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3) 기초단위의 ‘지역리더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최근, 중앙정부의 농어촌정책 추진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지자체 마다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을 통해 배양된 주민역량이 사업추진으로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데, 그 이유는 교

- 육담당부서와 사업담당부서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주민은 주민대로 늘어나는 교육에 맞추기 위해 유사중복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피로증’⁴⁾에 시달리고 있으며 교육수료자와 사업대상자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교육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고 농어촌정책의 성공도 보장할 수 없는 이중, 삼중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그러므로, 지자체에서는 교육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의 내실화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의 수료자와 사업대상자 선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역리더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주민이 갖추고 있는 역량의 특질과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사업배정과 추진을 통해 유사교육의 중복수강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주민들의 교육기피현상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예산의 절감도 가능하게 됨

○ 충남도의 통합적인 지역역량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p>◇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제를 통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 교육 일원화를 통해 교육대상자원의 중복수강을 방지함으로써 예산절감과 교육생확보의 어려움을 해소 - 교육과 정책사업의 연계를 통해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사업추진의 성공가능성을 높임 <p>◇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실 산하에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종합협의기구(외부 전문가 포함)를 신설 - 주민교육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실행부서는 기획감사실에 설치하고,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장단기,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협의기구’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 - 신설부서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교육을 프로그램별로 재분류하고, 유사중복과정의 통합하여 프로그램을 특성별(일반교양, 지역리더십함양, 농업기술관련, 기타) 단계별(초급, 중급, 고급)로 재정리 - 각 프로그램의 이수인원을 DB화하여, 프로그램시행 시에 중복수강을 방지하고, 단계별 프로그램 이수를 권장함으로써 유사중복과정 이수를 방지하고, 예산과 교육참여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 외부교육과정의 이수 지원 시에도 확보된 DB를 참고하여 시행 - 실행부서에서는 정책사업 시행 시에는 반드시 교육이수 결과를 참고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사업과 관련된 적절한 교육이수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리더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 행정력과 예산의 절감 - 교육참가자들의 중복 수강으로 인해 교육거부감 해소 -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
--

4) 그 원인으로는 첫째, 교육이 양적 과다와 교육참여 대상의 양적 과소문제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량이 절대적으로 너무 많은데다 농촌지역사회의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인해 교육에 참여할 수 대상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소수의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참여기회와 부담이 집중되고, 이로 인해 교육참여자들에게 교육피로증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의 질적 약화를 지적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양적으로 빠르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이에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은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교육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림으로써 교육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교육의 내용은 대부분이 지역(=마을)전체의 변화 발전과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참여자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으로 연결되기 어렵고, 따라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촉구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교육과 실천을 연계하는 통합적 인식의 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다. 다시 말해 교육내용을 실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의 뒷받침이 약하다는 점 또한 교육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의 내용이나 결과와 연계된 정책프로그램이 있어야만 교육참여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교육이 교육 그 자체로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에 교육 참여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유정규(2009), 「새로운 지역발전시대 지역역량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제2회 지역정책토론회, (재)지역재단.

○ 충남도의 역할

- ‘지역역량 통합관리 시스템’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제시함으로써 시·군으로 하여금 이러한 ‘시스템’구축이 용이하도록 지원함
- ‘지역역량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관련비용의 일정비율을 도(道)에서 지원하거나 관련사업의 예산 배정 시 가산점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유인해 나감
예) 전북도의 시·군단이 ‘농정기획단’ 설치 및 운영지원

(4)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

○ 지역역량강화는 일반적으로 교육·훈련과 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교육프로그램만으로는 역량강화에 한계가 있음

- 교육프로그램이 역량강화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과 배양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량강화란 근본적으로 대상지역의 주체들의 공동실천을 통해 배양되는 것이므로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실천을 통한 학습효과(leaning by doing)를 통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함

○ 선진국의 동향과 도입방안 모색

- EU의 LEADER 프로그램, 캐나다의 Canadian Rural Partnership⁵⁾, 일본의 시마네현의 지역가꾸기 Challenge사업 및 Try사업 등과 같이 소규모 파일럿(pilot) 사업을 통해 주민의 사업계획 역량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 즉, 단순한 교육·훈련이 아니라 사업의 실행을 통해 배워가는 실천학습(learning by doing)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우리도 행정과 주민 사이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주민간의 협력과 신뢰의 사회자본을 배양함과 동시에 사업계획 역량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소규모 파일럿트(pilot) 프로젝트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진안군의 Green Village사업, 옥천군 향수30리 아카데미 프로젝트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5) 주요 목표는 파일럿 사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내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인적자본 개발, 공동체 합의의 구축, 지역자산의 식별, 공동계획과 실행능력 배양을 하위목표로 두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www.rural.gc.ca/rural-dev/guidelines_e.phtml#4.

<표 4>

<진안군의 Green Village 사업 (예)>

<p>◇ 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주민들이 앞장서 마을의 환경정비를 통한 깨끗하고 밝은 지역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동체적 협동심을 함양 - 관심과 의욕이 있는 마을을 지원하고 심사하여 발굴함으로써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계기 확대 - 선정된 마을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 가꾸기사업을 추진하도록 재료비를 지원하고 사업 후 우수마을 선정 주민숙원사업 추가지원 <p>◇ 2010년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10. 2 ~ 8. / - 사업대상 : 33개 마을 - 제외대상 :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마을 - 사업비 : 93백만원 (마을당 2백만원 지원, 우수마을 추가지원 : 대상, 10백만원, 최우수 7백만원, 우수 2개마을 각 5 백만원) - 사업내용 : 주민들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환경 및 경관 등이 조성되는 사업, 취약지역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개선하여 효과가 좋은 사업 - 주요 사업대상 : ①특색있고 의미있는 마을담장 벽화, 간이정류장 벽화 등 환경개선. ②마을회관 및 공터 등에 소규모 쌈지공원 조성, 생태습지 조성, ③도로변, 마을회관 주변 등에 꽃밭, 꽃길, 소하천가꾸기 사업, ④마을의 더럽고 지저분한 취약지역의 정화 및 녹화사업 ※ 마을주민과 방문객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지역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 <p>◇ 시행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마을⇒읍면) - 접수마을 사업계획서 검토 및 대상마을 선정 추천 - 대상마을 보조금 지급 및 사업추진 - 읍면별 자체평가 후 우수마을 추천 - 군 합동평가 후 우수마을 시상사업비 추가지원 <p>◇ 우수마을에 대한 특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충남도의 도입방안

- 도(道)에서는 가이드라인(=대상사업의 종류, 지원자격, 사업내용, 추진방법, 평가체계 등)만 설정 → 시·군에 가이드라인 송부 : 가이드라인에 맞춰 독자적인 사업계획 수립
- 도(道)에서는 연간 사업 수를 적절하게 편성하고, 그에 합당한 예산편성(지역단위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소규모 가령, 1개 사업당 300~500만원), 시·군에서 선정한 사업의 평가, 인센티브 및 페널티(=차년도의 사업량 추가 혹은 감축)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
- 시·군에서는 도(道)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희망지역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하며, 집행과정을 감독, 자문하고, 사업추진결과를 도(道)에 보고함
- 도(道)에서는 1회적인 자금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해당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추진과정을 지원하고, 추진결과를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추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감
- 우수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해 나감

○ 이 사업의 의의

- 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으로 실질적인 지역역량 강화
- 작은 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공동체 단위의 사업추진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더 큰 규모의 주민사업을 추진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 고취

<그림 2> 진안군의 사업단위별 추진체계와 ‘그린빌리지사업’의 의의



(5) 외부인재 수혈

- ‘역량강화’란 개인, 조직, 사회가 자신의 생활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해 가는 과정 혹은 지역개발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확보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역량강화는 개인적 수준에서는 삶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력을 향상시켜나가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조직적 수준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과정이기도 함. 지역차원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해 개인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강화를 가능하게 함
 - 최근에는 지역 스스로의 역량강화에 한계가 있을 때, 외부로부터의 인적자원을 초빙하여 지역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려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이 ‘개방형공무원제도’의 활용임
- 개방형공무원(=계약직공무원)의 현황
 - 개방형 혹은 계약직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연구 또는 기술분야 등에 근무하는 전문가를 의미하며, 상근계약직과 비상근계약직으로 대별되고, 직급에 따라 가급~마급까지 5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공무원’은 총 3,087명이며, 시군구 이하 기초단위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1,631명으로 광역단위근무자가 1,458명 보다 약간 많은 편임

<표 5> 시도별공무원 현황(2007.12.31.현재)

	총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총계	275,484	78,855	75,839	11,973	151,212	48,275	48,433	18,607
고위공무원	37	-	37	-	-	-	-	-
일반직	191,492	62,694	30,897	6,238	117,633	38,984	42,962	17,472
특정직	31,178	1,810	31,178	1,810	-	-	-	-
기능직	45,855	10,887	11,503	3,178	28,905	6,587	5,447	1,122
정무직	245	5	19	-	226	5	-	-
별정직	3,587	2,211	747	216	2,837	1,992	3	3
계약직	3,089	1,284	1,458	531	1,610	707	21	10

-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1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의해 본격화되었음. 지방공무원법 상에 전문계약직공무원규정이 마련되었기 때문임
- 전체적으로 볼 때, 2002년 1,163명에 불과하던 계약직공무원이 2007년 말에는 3,089명으로 5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음
- 민간기업 또는 대학교 등 민간부문의 우수한 인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전문분야의 공공행정을 담당토록 하는 이 제도는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개방화를 유도하여 정부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음. 즉, 일정기간에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대신에 연공서열 없이 성과에 따라 급료를 지불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자극을 주고,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성과에 따라 책임을 묻게 됨
- 이처럼 지역외부로부터 인재를 초빙,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지역개발을 창의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서는 전북 진안(마을만들기팀)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전북 완주군에서도 ‘지역경제순환센터’의 조직(로컬푸드센터, 마을회사육성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 도농순환센터, 공간문화센터)을 그대로 행정조직(지역활력課)으로 전환함으로써 課전체에 각 계(係)단위로 민간전문가가 1인 이상 참여하고 있음

○ 충남도의 도입방안

- 충남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외부인재 유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책을 시행할 수 있음. 가령, 전북도의 경우 민선4기 시절에 각 시·군에서 민간전문가를 초빙하여 민관합동으로 ‘농정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최초 2년간의 소요비용의 50%를 도비(道費)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음

- 각 시·군에서 외부인재를 유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부인재 유치(제도)의 필요성과 운용에 관한 연찬회를 개최하여, 시·군으로 하여금 그 필요성을 인식케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예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상기 전북도의 경우처럼 필요경비의 일정부분을 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때 필요경비의 지원방법은 사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사전에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모범적인 운용 시·군에 대해 사후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초기(2~3년)에는 사전적인 지원을 하고, 어느 정도 확산된 (3년)이 후에는 사후적인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됨
- 이 제도의 도입 시에는 반드시 전북도의 실패(?)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전북도의 실패 원인은 첫째, 이 제도에 대한 각 시군의 인식과 의지부족 둘째, 적절한 외부인재의 (확보)부족 셋째, 도(道)의 형식적인 정책추진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진안군과 완주군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함

5. 맺음말

- 충남도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와 지역(주민)의 각성을 토대로 지역리더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종래의 품목별, 전문 분야별 기술교육과 달리 지역발전과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리더육성교육이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방법도 일방적 강의방법에서 벗어나 사례발표, 워크숍, 분과토론 등 피 교육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선진적인 교육방법이 도입되고 있고, 신활력사업을 계기로 단기적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최소 2~3개월의 장기적인 교육이 실시되는 등 양적·질적으로 진전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마케팅/유통 및 영농기술이나 품목별 전문교육 내지 품목별 전문리더 양성(지역농업혁신 리더 아카데미,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충남 농업테크노파크 RIS사업) 등 농업인력 육성교육이 대부분으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리더’의 육성을 위한 교육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 그러므로 충남도에서는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적응하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의 종합적 활용을 통해 지역개발의 효과가 지역 내에 귀속되도록 하는 내발적이고 통합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리더육성과 지역역량강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 하지만, 이러한 지역리더 육성교육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임
 - 첫째, 리더 교육은 피교육생의 장기적인 태도나 의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이므로 소득증대나 영농기술 습득에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 참가자들의 참여 동기가 약함. 따라서 교육 참가자들의 전체적인 인식수준이 제고되기 전까지는 도나 시·군에서 관련사업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등의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둘째, 교육방법의 개선을 위해 참여식·토론식 강의, 워크숍 등의 강조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참여자들을 주체로 내세우고 이를 조력할 수 있는 경험있는 교육스텝들이 필요하고 또 태도와 의식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열정과 철학이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함. 그러므로 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전문민간교육기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민간교육기관에 맡길 경우에도 이러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리더 교육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을 주입하는 교육과 다르기 때문에 실천지향적(action-oriented), 태도변화적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별로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사전에 지역특성과 교육대상자들의 요구, 교육대상자들의 선정 등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넷째, 도(道)와 시·군단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함. 도(道)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수립과 가이드라인제시, 사후평가 등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교육진행(프로그램 결정, 교육생 모집, 교육진행 등)은 시·군에서 주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농촌지역의 리더교육은 본래 지역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각 시·군마다 각기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다만, 아직 우리의 여건이 지역단위에서는 이러한 리더교육에 대한 충분한 수요와 인식이 부족하므로 도(道)에서 기본적인 방향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일정부분 예산적인 뒷받침과 사후 모니터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군의 의지를 자극하고 촉구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리더교육은 발상의 전환, 새로운 리더십 기법의 습득, 자기확신의 고취 등을 통해 수강생들이 교육 이후에 지역에 돌아가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육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도(道)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교육수료자들 상호간의 네트워크와 심화교육기회, 관련사업의 우선 배정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역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리더의 육성교육 뿐만 아니라 진안군의 그린빌리지사업이나 유럽의 LEADER 프로그램과 같은 실천학습(learning by doing) 프로그램의 도입과 외부로부터의 인재유입 방안도 필요하며, 시·군단위의 지역역량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